비교문화연구 제79집 (2026.10) pp. 37~64

계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 담론
– 바버라 킹솔버의 『도피 습성』*

권 지 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바버라 킹솔버의 『도피 습성』(2012)을 계층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지배적인 기후 담론에 내재한 계층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후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애나 브릭하우스의 "다른 장소의 재앙" 개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후재난을 미국 바깥의 사건으로 외부화하는 미국 예외주의적 시선이 미국 내 기후 취약계층의 현실을 비가시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도피 습성』은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의 백인 빈곤층을 기후 서사의 전면에 배치하고, 도시 중산층 중심의 환경 윤리와 저탄소 실천이 경제적 생존의 문제와 충돌하는 양상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한다. 특히 소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들의 부인과 반생태주의적 선택을 단순한 무지나 정치적 보수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빈곤과 생존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대응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주인공 델라로비아가 멕시코의 기후 이주민과 중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소설이 계층 의식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시민주의'를 상상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는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기후 취약성, 젠더화된 노동, 이동성의 제한이 교차하는 경험에 기초한다. 비록 이러한 연대가 개인적 인식과 성장의 차원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도피 습성』은 환경 세계시민주의에 계층적 감수성을 더함으로써 기후 취약계층의 연대와 포용에 기반한 새로운 기후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도피 습성』, 기후 소설, 다른 장소의 재앙, 애팔래치아 농촌 백인 빈곤층, 계층적 세계시민주의

* 이 연구는 202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www.kci.go.kr

Ⅰ. 들어가며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나 동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같이 최근 들어 빈번해진 이상 기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미국인은 여전히 미국이 기후변화의 폐해로부터 안전한 장소라는 믿음을 견지한다. 2025년 12월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반수는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 위기 및 대규모 난민 발생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반면 그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Ballard 2026). 2026년 5월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혹은 "세계의 빈곤층"을 선택한 응답은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선택한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George Mason[1] 2026). 미국이 기후재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러한 예외주의적인 믿음 체계를 애나 브릭하우스(Anna Brickhouse)는 "다른 장소의 재앙(elsewhere catastrophe)"이라 명명한다(2022:34).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은 기후 위기를 포함한 각종 재난을 "비미국적(un-American)"인 요소로 외부화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방식을 취해 왔다(2022:34). 그 결과, 기후재난은 물리적, 상징적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미국 바깥의 장소'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재앙 자체가 [미국 바깥의]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국가적 환상 기제"가 작동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은 그 주된 희생자인 빈곤층 혹은 유색인종을 정상적인 국가 신체에 속하지 못하는 타자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을 "은유적 의미에서 국경 너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기입한다[2](2022:38).

---

1) 공식 명칭은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으로, 현재 쪽 이후로는 George Mason으로 표기한다.

2) 대표적인 예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 다수의 미디어는 홍수에 잠긴 뉴올리언스를 "제3세계"로, 카트리나의 피해자들

www.kci.go.kr

미국의 기후 위기 담론에 내포된 예외주의적 시선과 그에 따른 미국 내 기후 취약계층의 비가시화는 바버라 킹솔버(Barbara Kingsolver)의 『도피 습성』(*Flight Behavior*)이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소설은 경제적 계층의 문제를 기후 위기 서사의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국 기후 소설들과 차별화된다. 도시 중산층의 기후 의제에 집중하거나 혹은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이가 세계의 아포칼립스적 멸망을 감내하는 것이 이전까지의 기후 문학의 일반적인 도식이었다면, 『도피 습성』은 남부의 바이블 벨트(The Bible Belt)에 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백인 가족을 통해 기후 위기가 경제적 소외계층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특히 작가는 이들에게 있어 기후 위기가 윤리적 당위나 정치적 선택이 아닌 경제적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소설의 중심 사건인 위기종 제왕나비의 보호와 이들이 머무는 숲의 벌목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난다. 이상 기후로 인해 원래 목적지인 멕시코 대신 테네시로 날아든 나비 떼의 이동이 외부 관광객과 일부 환경운동가에게는 미학적 스펙터클로 소비되거나 혹은 일회용 물품의 소비를 지양하고 비행기 이용을 줄이는(Kingsolver 2012:327)[3] 등의 중산층적 기후 윤리를 논하는 기회로 여겨진다면, 지역민들에게 이 숲은 장기적으로는 산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당장의 생계 해결을 위해 벌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딜레마의 장소이다. 계급의 문제를 기후 위기 담론 속으로 포섭하려는 작가의 노력은 "다른 장소의 재앙"과 정확히 반대되는 논리를 따른다. 다른 장소의 재앙이 재난을 국경 바깥으로 외부화함으로써 미국 내 소외계층의 취약성을 담론에서 지워버린다면, 소설은 반대로 이들의 취약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재난을 미국의 현실 속에 위치시킨다.

기후재난의 충격이 미국 내에서도 계층과 빈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피 습성』은 국가 공동체를 넘어서는 세계시

(대부분이 흑인 및 라틴계 서민층이었던)을 "난민들(refugees)"로 호명했다.

3) 현재 쪽 이후에는 『도피 습성』의 본문을 인용할 시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www.kci.go.kr

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한편으로 이는 미국 안팎의 타자들을 환대하고 이들과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식의 전형적인 세계시민주의적 방식을 따른다. 주인공 델라로비아 턴보우(Dellarobia Turnbow)에게 나비의 출현은 자기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각종 인종과 계층, 국적의 사람들과 조우하는 통로로 기능하며, 그 과정에서 숲은 경제적 이윤에 좌우되는 소유의 장소에서 나비를 포함한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유의 장소로 변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델라로비아의 세계시민주의는 특히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환대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산사태로 집을 잃고 나비와 함께 테네시로 이주한 멕시코인 가족, 그리고 제왕나비의 무늬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이름 모를 중국인 노동자의 일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듯, 나비의 취약함에 대한 델라로비아의 자각은 기후 위기에 노출된 또 다른 취약한 존재인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피 습성』은 우르술라 하이제(Ursula Heise)가 언급한 “환경 세계시민주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하이제에 따르면 환경 세계시민주의는 국가나 지역같이 “경계화된 장소에 기반한 근접성의 윤리(ethics of proximity)” 대신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참여하는 전지구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추구한다(Heise 2008:61). 마찬가지로, 기후 문제에 있어 미국을 하나의 균일한 운명공동체로 상상하는 “근접성의 윤리” 대신, 소설은 미국이라는 고정된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기후 위기에 취약한 존재들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상상하고 가시화하는 전지구적인 공동체를 그려낸다.

II. 본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지난 10여 년간 기후 담론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는 이재민의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층이라는 여러 연구 결

www.kci.go.kr

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환경 정책부터 기후 위기를 이해하는 문화적 정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기후 담론은 여전히 백인 중산층 중심의 인식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환경과 관련된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중산층 백인 남성의 경우 64%인 반면 유색인종 및 서민층의 비율은 14%에 불과했다(Jackson 2023). 기후 위기가 일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역시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 예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SNS를 통해 진행된 "사랑을 위한 캠페인(For the Love of Campaign)"은 기후 위기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했지만 "이는 소외된 지역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축소하고 그 대신 초콜릿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Noor 2017). 기호 식품의 품귀 현상이 인류세 시대가 당면한 대표적인 위협으로 소구되는 이러한 도시 중산층적인 시선은 계층에 따른 소비 윤리의 차이로 이어진다. 대니얼 파버(Daniel Faber)에 따르면, 미국의 지배적인 기후 행동 방식인 "덜 소비하기(consuming less)"라는 중산층 중심의 소비 윤리는 삶을 원만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소비해야 하는" 서민층의 요구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Faber 2024:19), 이 과정에서 후자는 '비윤리적'이라는 라벨 하에 주류 담론으로부터 배제되고 기후 행동은 전자의 소비 윤리로 범위가 협소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층 문제를 기후 의제의 일부로 담론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최근의 미국 기후 소설(cli-fi)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피 습성』을 필두로 한 몇몇 소설들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특수하고도 고유한 경험을 서술한다. 데브라 로젠탈(Debra Rosenthal)은 이들 소설을 "생태 빈곤(ecopoverty)" 장르로 규정한다. 기후 소설의 대표적 형태인 아포칼립스 작품들이 즉각적이고도 말초적인 반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후 포르노"로 작동한다면, 생태 빈곤 장르는 빈곤층의 현실 경험에 천착함으로써 느리지만 전

www.kci.go.kr

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Rosenthal 2020:272).[4] 로젠탈에 따르면, 생태 빈곤 소설에 나타난 사실주의적 묘사는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 간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유용한 통로로 기능한다. "부의 불평등과 기후변화는 둘 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제적, 정치적 요소이므로, 생태 빈곤이 제시하는 비판적 관점은 빈민층에 대한 착취와 지구에 대한 착취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고 연결짓는다"(Rosenthal 2020:269).

생태 빈곤 서사로서의 『도피 습성』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후 빈곤의 주체를 농촌의 백인 빈곤층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구성하는 인구 중 유색인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계층적 기후 정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가 '백인 중산층'과 '유색인종 빈곤층' 간의 대립에 기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또한 교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기후 위기를 인종과 계급이 교차하는 다층적인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도 분명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백인 중산층'

4) 기후 소설을 둘러싼 아포칼립스/사변 소설 형식과 사실주의 형식 간의 대립은 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 중 하나이다. 롭 닉슨(Rob Nixon)의 "느린 폭력(slow violence)"과 티머시 클락(Timothy Clark)의 "규모(scale)의 차이" 이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기후변화의 느리고도 점진적인 속도는 개개인의 인식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종류의 사건이며 따라서 기후 위기는 사실주의와 같이 "쉽게 식별되는 인간 삶의 시간성에 기반한 서사 형태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Clark 2010:143). 비슷한 맥락에서,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는 근대 소설의 일상성이 기후 위기의 언캐니한 측면과 근원적으로 상충함을 지적한다. 근대 소설은 "예외적 순간에 대한 은폐"에 기반한 "있을 법한" 사실주의적 일상성을 서사의 동력으로 삼으며(2021:29), 따라서 기후변화의 언캐니함을 담아내기에는 사실주의 소설보다는 사변 소설이 훨씬 적합한 형태이다(2021:100). 반면, 최근 들어 사실주의 기후 소설의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일련의 이론적 시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로젠탈의 생태 빈곤 사실주의 이외에도, 애덤 그레너(Adam Grener)는 루카치의 이론을 빌려와 사실주의 기후 소설이 기후 위기를 역사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존 티임(John Thieme)은 기후 소설 장르에서의 사실주의가 정통 사실주의부터 메타픽션과 혼합된 사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인류세적 사실주의(anthropocene realism)"라 총칭한다.

www.kci.go.kr

과 '유색인종 빈곤층'이라는 도식화된 기본값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백인 빈곤층을 의도치 않게 담론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도피 습성』은 그동안 사회적 인식과 문학적 재현 모두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백인 빈곤층의 삶을 전경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설은 200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테네시 애팔래치아산맥의 시골 마을인 페더타운(Feathertown)에 살면서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레드넥(redneck-poor)"의 일상을 그려낸다(136).[6] 한편으로, 페더타운은 기후변화의 충격과 상관없이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에 의해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쇠락한 장소이다. "중국의 아동 노예들"(158)이라는 정형화된 편견으로 대변되는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력은 델라 로비아 어머니의 실직과 그에 따른 가족의 궁핍으로 이어졌고, 마을의 중심 거리는 "월마트"로 대변되는 초국가적 거대 자본에 밀린 가게들의 공실로 폐허가 된 지 오래다(380). 멕시코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역시 이 마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쇠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로 기능

5) 백인 중산층/유색인종 빈곤층이라는 도식적 범주 이외에도, 계층에 대한 논의의 전면에 계층 대신 인종적 정체성을 전면에 배치하는 수사법 역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와 빈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논하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신문 기사의 표제는 "멸종 저항 운동에서는 온통 흰 얼굴만 보인다"(Akec 2019)이며, 같은 주제를 다루는 또 다른 기사의 부제는 "환경 위기는 백인의 위기가 아니다"(Noor 2017)이다. 계층-인종의 문제에서 인종이 과잉 대표되는 이와 같은 방식의 수사는 백인 빈곤층을 기후 빈곤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념적 효과를 낳는다.

6) 사라 웹-선더하우스와 킴 도네하워(Webb-Sunderhous & Kim Donehower 2015:4)에 따르면, 애팔래치아 지역에 사는 백인 인구를 하나의 균일한 정체성으로 호명하는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은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 상상의 정체성"에 가깝다. 직업이나 생활 방식, 이동의 자유와 소득 수준의 측면에서 애팔래치아의 농촌(rural) 지역과 도시(urban) 지역, 그리고 18세기 광산 산업의 후손들인 산악 지역에 사는 백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부 백인' 혹은 '애팔래치아 백인'과 같은 "우산 용어(umbrella term)"로 호명되어 왔다(2015:7).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글에서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애팔래치아의 농촌 백인 빈곤층'이라는 (다소 길지만 자세한) 표현을 사용한다.

www.kci.go.kr

한다. 돈이 없을 때마다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허름한 싸구려 상점에서 늘 멕시코인들을 마주친다는 델라로비아의 독백은 마을의 백인 미국인들과 이주노동자의 경제력이 크게 다르지 않아졌음을 암시하며, 이주노동자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실패와 그에 따른 부의 하향화된 평준화는 주민들의 일상을 “악화된 급여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예전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51). 여기에 더해, 2008년에 발생한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의 여파는 델라로비아의 시부모님과 델라로비아 부부에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안겨준다. 양 목장을 운영하는 델라로비아의 시아버지 베어 턴보우(Bear Turnbow)는 수입의 다각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거액을 빌려 기계 작업장을 확장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의 중단은 이자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재산 압류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의 가난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존 티임(John Thieme)은『도피 습성』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한다(2023:17). 실제로,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을 필두로 한 미국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과『도피 습성』은 각각 1929년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과 2008년의 대침체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가난한 남부 백인의 삶을 그려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무산계급이 겪는 고난이 비극적 카타르시스의 감정으로 이어졌던 20세기 초의 미국과 달리, 킹솔버가 그려내는 21세기 초의 미국 사회에서는 애팔래치아 농촌 백인의 빈곤이 비극이 아닌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페더타운을 방문한 나비 연구팀의 일원은 레드넥 농부의 무지를 희화화하는 “다리 수를 센 다음 4로 나눠 소 떼의 수를 세는 남자에 대한 오래된 농담”을 델라로비아에게 스스럼없이 건네고(142), TV 프로그램에서는 “여피들(yuppies)이 컨트리 뮤직을 듣는 이동식 주택 거주자를 비웃는 건방진 코미디언을 바라보았다. **테네시**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들 방청객은 웃음이 터졌다”(166). 이들에 대한 문화적 재현 방식이 “TV 속의 괴물 쇼(freak show)”(224)와 다를

www.kci.go.kr

바 없다는 델라로비아의 비판대로, 애팔래치아 농촌 백인의 가난과 낮은 교육 수준은 미디어를 통해 언제든지 비웃을 수 있는 값싼 오락거리이자 주류 문화에서 밀려난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타자'의 기표로 작동한다.

"여피"로 대변되는 도시 전문직 중산층 문화로부터의 소외가 한편으로 "조롱이 근사한 유행이 돼버린"(187)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기후 위기는 이러한 소외 현상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 환경운동가인 레이턴 애킨스(Leighton Akins)의 일화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탄소 발자국 감소 운동을 홍보할 목적으로 페더타운을 방문한 그는 나비 떼의 등장이 기후 위기에 무관심한 마을 사람들을 계몽할 절호의 기회라 여긴다.

> "전 **언제나** 노력하죠." 애킨스 씨는 밝게 대답했다. 눈처럼 흰 그의 앞머리는 일자로 잘려있었고 앞니는 벌어져 있었다. "바로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나 샌프란시스코 대신 여기 같은 곳에 옵니다. 이곳에 사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동참해야 합니다.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죠." (315)

환경보호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포틀랜드나 샌프란시스코"와 "당신들 같은 사람들" 간의 대조는 남부 레드넥의 뒤떨어진 기후 인식에 대한 애킨스의 확신을 반영한다. 그러나 포틀랜드와 샌프란시스코가 상징하는 도시 기반의 저탄소 실천은 소비의 과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페더타운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애킨스가 제시하는 생활 수칙이 "붉은 고기를 덜 섭취"하고 "레스토랑에서 다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비행기를 덜 타는" 등 일상의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면, 영양결핍 방지를 위해 붉은 고기의 섭취량을 늘려야 하고 외식할 경제적 여력도 없으며 비행기는 평생 타 보지도 못한 델라로비아의 상황은 소비 행위가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불필요한 과잉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삶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증언한

www.kci.go.kr

다(327-9). 애킨스가 대변하는 도시 중산층의 소비 윤리와 반대로 소비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델라로비아의 현실은 저탄소 실천 운동이 계층의 문제와 접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가난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빈곤층의 삶은 도시 중산층에 기초한 의제 속에 담긴 계층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고탄소 생활 방식으로부터 부당하게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중산층 소비자"(Rosenthal 2020:278)라는 불편한 진실을 눈앞에 전시한다.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의 백인 빈곤층에 덧씌워진 '기후 위기에 무감한 레드넥'의 이미지가 이들을 기후 행동의 방관자로 주변화시킨다면, 다른 장소의 재앙에 대한 믿음은 이들의 존재를 기후 서사에서 지워버린다. 제왕나비를 연구하기 위해 델라로비아 집의 헛간에 간이 연구소를 차린 오비드 바이런(Ovid Byron) 박사는 CNN 기자인 티나 얼트너(Tina Ultner)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하지만 나비 떼를 이상 기후의 증거로 보는 대신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티나의 태도는 둘 사이의 기나긴 설전으로 이어진다.

> "나비 떼가 아름다운 장관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분명하죠."
>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매우 괴롭습니다."
>
> 티나의 이빨이 드러났다. "그건 왜죠?" ...
>
> "티나. 여기서 아름다움만을 보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에요." (365)

> "당신은 이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만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는군요." 그는 티나에게 말했다. "당신 책임이 아닌 어딘가 다른 장소 말입니다."
>
> 티나는 숨겨둔 무술 기술을 보여주려는 듯 갑자기 한 손을 옆으로 올렸다. "이봐요 그만해요. 난 태국에서 두 아들을 입양했다고요." (368)

www.kci.go.kr

나비가 상징하는 전지구적 기후재난이 페더타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로 취급하는 티나의 태도는 서론에서 논한 다른 장소의 재앙을 상기시킨다. 그에게 있어 나비 떼의 출현은 임박한 기후재난의 표식이 아닌 미학적 스펙터클에 불과하며, 대재앙은 미국 바깥의 개발도상국에서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들에게나 발생하는 일로 인식된다. 테네시를 포함한 미국을 예외적인 장소로 설정하는 다른 장소의 재앙 개념은 미국과 제3세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불평등하고 시혜적인 것으로 고착시킨다. "태국에서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전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티나의 발언은 기후재난을 미국 바깥으로 투사함으로써 외부의 재난 희생자들을 미국에 의해 구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질시킨다.

티나가 대변하는 다른 장소의 재앙이 미국 밖의 재난 희생자들이 겪는 고난을 과잉 재현함에 따라, 미국 내 경제적 소외계층이 겪는 일상의 재난은 상대적으로 과소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산사태나 농작물 피해와 같은 물리적 재난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재난의 의미를 지역민이 직접 언어화할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은 페더타운의 과소 재현을 한층 더 심화한다. 델라로비아의 상황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페더타운의 이상 기후는 그에게 일종의 세계시민주의적 경험을 선사한다. 몇 달 동안 내린 비와 뒤이은 나비 떼의 도착은 일견 고립되어 보이는 페더타운이 세계 기후 질서의 일부로서 다른 장소들과 밀접하게 연동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기후 위기를 매개로 한 세계적 공간의 연결은 "[델라로비아]의 작은 장소를 세계의 지도 속에 위치시킨다"(121). 페더타운이 전세계적 기후 담론의 적법한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델라로비아는 티나와의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좁은 세계가 재난에 의해 확장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동안은 사소한 내 삶에만 매몰돼 있었어요. 오직 나만이었죠. 그런데 여기[숲]에는 나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209). 그러나 이상 기후의 위험을 알

www.kci.go.kr

리는 나비가 전문직 중산층인 티나에게는 미국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는 스펙터클로 탈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의 경험을 통해 획득된 델라로비아의 지식은 값싼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십거리로 대체된다. 나비와의 조우가 자기의 사소한 삶을 넘어서게 했다는 델라로비아의 회상은 편집을 통해 자살 시도에 대한 고백으로 둔갑하고, 그의 얼굴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합성한 나체 사진은 "나비 비너스"(214)라는 이름 하에 엄청난 SNS 조회수를 올리며 선정적으로 소비된다.

철저하게 도시 중산층의 기준에 맞춰진 다른 장소의 재앙 개념과 저탄소 실천 운동, 그리고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가십거리로 대상화하는 미디어의 행태는 페더타운이 대변하는 애팔래치아의 농촌 백인 빈곤층을 침묵시키거나 혹은 계도의 대상으로 단순화한다. 이와 같은 비판 의식을 기반으로,『도피 습성』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촌 빈곤층의 현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이들의 숨겨진 서사를 복원하려 시도한다. 특히 소설은 '기후 위기에 무지한 레드넥'이라는 표면적 이미지 아래에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암시한다. 앞서 논한 애킨스 일화 이외에도 숲의 벌목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사업 확장의 실패와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베어 턴보우는 나비 떼가 머무는 숲을 벌목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애킨스부터 전통적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지역 대학생들과 숲을 점유해 저항하는 급진적 활동가들, 그리고 나비 모양의 뜨개 직물을 SNS에 올려 지지를 호소하는 영국인들까지 다양한 국내외의 기후 행동가들을 턴보우 가족의 목장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벌목에 따른 기후재난의 위험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턴보우 가족이다. 이들과 같은 이유로 사유지를 벌목한 이웃의 버크만(Buchman) 가족은 "지난 3개월 동안 여섯 번의 산사태를 겪었고"(40), 산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은 또 다른 이웃인 쿡스(Cooks) 가족의 과수원을 "이상 기후의 희생자"로 만들었다(257). 벌목 행위가 초래하는 기후재난을 직접

www.kci.go.kr

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이를 강행해야 하는 턴보우 가족의 상황은 가족 중 유일하게 벌목을 반대하는 델라로비아마저도 함부로 말을 얹기 어려운 문제이다. “델라로비아는 더 이상 말하기를 주저했다. 나무 자체를 위해 나무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남편이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소유한 나무도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압류되는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벌목 금지가] 쉬운 요구일 테지”(44).

벌목이 대변하는 지역민의 반생태주의적 행동이 홍수와 파산이라는 두 위험 요소 사이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소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백인 빈곤층의 태도가 다층적 관점이 교차하는 복잡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작가는 이들을 피해자로 낭만화하는 대신 이 계층에 만연한 바이블 벨트 특유의 정치적 보수성을 지적한다. 델라로비아의 남편 컵(Cub)은 기후 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지역 방송을 그대로 답습해 “앨 고어(Al Gore)는 엉덩이나 까라 그래”(260)[7]라 비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지구 온난화는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컵의 화를 돋우는 주제였다. 마치 그것이 배신행위라도 되는 듯”(301). 그러나 정치적 신념의 표출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턴보우 가족의 부인은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몇 달 동안 그치지 않는 비에 집과 농장이 훼손되고 건초와 토마토 농사가 망하는 걸 경험하면서도 컵과 시부모님은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이상 기후에 대한 델라로비아의 걱정을 차단한다. 델라로비아가 “비대화(nonconversation)”(255)이라 부르는 이와 같은 자기최면적인 믿음은 다른 장소의 재앙에 대한 수사로

7) 앨 고어는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에게 패배한 이후부터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6년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출간하고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기여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민주당이 벌인 사기라고 믿는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앨 고어에 대한 적대감을 꾸준히 표출해 왔으며, 본문의 문장은 이러한 2000년대 미국의 보수적 정서를 반영한다.

www.kci.go.kr

이어진다. 제왕나비가 원래 목적지인 멕시코의 미초아칸주(Michoacan)를 떠나 테네시로 날아온 이유가 그곳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델라로비아는 똑같은 일이 페더타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 [델라로비아의] 마음속에는 원치 않게 공포영화의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다. 마을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완전히 납작해질까? 아니면 집들이 차량처럼 물 위로 떠올라 사람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줄까?
> "그곳은 멕시코잖아." 컵이 말했다. "이곳은 여기이고." ...
> "만약 나비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면, [오비드] 박사와 팀원들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의 헛간 뒤에 캠프를 차리겠지."
> "만약 나비들이 날아갈 곳이 없다면?" 델라로비아가 물었다.
> "날아갈 장소는 언제나 있어." 컵은 대화를 끝내겠다는 어조로 말했다. 그런 걱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걱정거리가 많잖아.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171-2)

기후재난의 측면에서 미국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델라로비아의 주장과 달리, 컵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재난이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친다. "그곳은 멕시코"이고 "이곳은 여기" 미국이라는 인용문의 표현이 암시하는 대로, 벌목 행위가 나비와 인간 모두의 생태계를 파괴한 멕시코와 달리 이곳 미국에서는 벌목 후에도 나비가 무사히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이고, 내년에는 이상 기후가 사라질 것이며, 자연의 순환은 늘 그래왔듯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컵이 내비치는 다른 장소에 대한 믿음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의도적인 부인이라는 점에서 티나의 경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다른 걱정거리가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즉 산사태와 파산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이곳 사람들에게 전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응축된 대상'이며, 따라서 재앙이 미국 바깥의 사건이(어야 한다)라는 컵의 신념은 부인(denial)을 통한 자기 보존의 욕망을 암시한다. 다른 장소의

www.kci.go.kr

재앙이라는 동일한 기표가 계층에 따라 상이한 맥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작가의 시선은 바이런 박사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민속 예술(folk art)처럼 작동했다. 그것은 생존을 정의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었다”(395).

기후 위기를 둘러싼 의미화 작업이 미국 내에서도 계층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도피 습성』은 미국 바깥의 경제적 빈곤층과의 유대감에 기반한 독특한 형태의 세계시민주의를 상상한다. 계층적 세계시민주의는 소설 전반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델라로비아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구현된다. 페더타운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테네시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델라로비아에게 미국 바깥의 장소에 대한 경험은 반이슬람 정서와 세계화 경제 질서를 매개로 한 물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의 적 1번이 오사마 빈 라덴과 혼전 섹스”(219)인 페더타운에서 외국인에 대한 언급은 자동으로 “아랍인”과 “테러리스트”(45)로 이어지고, 저가 할인점의 중국산 제품은 델라로비아가 상상하는 외국을 “조잡하게 만든 모자와 옷을 입고 세상의 모든 행복한 가정들을 저주하는 ... 아동 노예들”(158)의 장소로 탈구시킨다. 세계와의 연결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식이 중국산 제품의 구입이라는 극도로 물화된 형태임을 고려할 때, 델라로비아가 나비의 이동에 함의된 전지구적 연결성의 의미를 단번에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소설 초반의 델라로비아에게 나비 떼는 그저 아름다운 경이의 대상이자 자기가 처음 발견한 소유물로 해석된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고(15), “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산의 나비는 선물,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는 감히 상상했다”(101).

나비에 대한 델라로비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은 페더타운으로 모여든 다양한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바이런 박사와의 만남은 기후 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사실을 배우고 지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델라로비아가 보여주는 세계의 연결성에 대한 자각은 이민자들과의 만남을 통

www.kci.go.kr

해 본격화된다. 멕시코 출신의 델가도(Delgado) 가족 일화는 델라로비아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나비의 겨울 서식지였던 미초아칸주에서 관광객에게 나비를 안내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 가족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후 페더타운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서식지를 잃고 새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나비 떼와 델가도 가족 간의 공통점은 델라로비아에게 나비와 글로벌 남반구 이민자 사이의 유비 관계를 인지하게 만든다.[8)]

> "그러니까, 저기 아래쪽에 살던 그들[나비 떼]이 이제는 여기로 올라와 산다는 말인가요?" 델라로비아는 이 말이 왠지 낯익다는 것을 알아챘다. 사람들이 이민자들에 대해 흔히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98)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나비 떼의 고난이 글로벌 남반구 이민자들의 현실과 중첩된다는 자각은 나비를 향한 환대가 곧 이민자를 향한 환대와 연결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여름 동안 잠깐 북쪽을 방문하는"(119) 나비 떼와 마찬가지로 델라로비아는 이민자들을 "우리 마을의 방문객"(114)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이러한 변화는 나비 떼가 상징하는 기후 위기가 미국 바깥의 인종적, 국가적 타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암시한다. 델라로비아가 보여주는 환대의 몸짓은 이민자들이 "이곳[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고향이 있음"(102)을 깨닫는 겸허한 의식인 동시에, 자신이 미국에서 즐긴 나비의 아름다움이 남반구의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음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델가도 가족에 대한 델라로비아의 환대는 이들을 유색인종 이민자라는 정형화된 범주에서 개별적이고 고유한 개체로 변화시킨다. 이들에 대한 첫인상이 페더

8) 엄밀하게 말하면 멕시코는 지형적으로 북반구에 속하지만, 기후 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 즉 북반구 국가들에 비해 기후 재앙에 훨씬 더 취약한 남반구 국가들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멕시코를 "글로벌 남반구"의 일부로 간주한다.

www.kci.go.kr

타운에서 지나치는 여느 이주노동자와 다르지 않고 그들의 외국 이름은 듣자마자 잊어버릴 정도로 무의미한 대상이었다면, 대화가 끝나고 이들이 떠날 때 델라로비아는 이름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레이날도 델가도, 안간구에오, 미초아칸주”(103)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소중히 간직한다.

기후 위기의 여파에 노출된 남반구 이민자에 대한 델라로비아의 환대는 국경을 초월한 계층적 유대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소설은 마을을 방문한 중산층 미국인들과의 국가적 동질성보다는 가난의 공통 분모를 통해 델가도 가족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델라로비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한 예로,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드는 연구팀의 일상을 듣던 그는 갑자기 델가도 가족의 고난을 떠올린다. “그는 이 사람들이 호세피나의 가족이 살던 곳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알고는 있을지 궁금해졌다”(140). 그리고 이 생각은 곧바로 테네시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자기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델라로비아 아들의 보모를 제안하는 레이날도의 아내 루페(Lupe)에게 델라로비아는 “웃으면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인도한다고 생각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자신은 갈 데가 없다고 그는 대답했다”(140). 연구팀 일원들과 동일한 국적과 인종과 나이대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계층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는 델라로비아로 하여금 자신이 델가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구팀이 이동 행위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한다면, 반대로 경제적 빈곤층에 허용된 이동성은 델가도 가족처럼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적으로 낯선 장소로 이주하거나 혹은 델라로비아처럼 가난한 고향을 벗어나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종류의 것이다.

빈곤을 매개로 한 자기 동일화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백인 미국인인 델라로비아와 남반구 이민자인 델가도 가족이 경험하는 빈곤은 결코 동질적인 층위에서 작동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는 이들에게 허용되는 노

www.kci.go.kr

동 형태의 차이에서 두드러진다. 소설 도입부부터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가정 영역 내에서의 돌봄 노동은 애팔래치아 농촌 빈곤층 여성인 델라로비아와 이민 노동자 여성인 루페에게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노동의 형태로 제시된다. 주부로서 가족을 보살피고 농업 노동자로서 새끼 양을 돌보는 델라로비아의 상황[9]은 멕시코에서 남편이 안내하는 관광객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미국에서는 보모라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이민자 여성의 돌봄 노동을 하는 루페와 비교해 볼 때 젠더화된 노동과 선택지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두 등장인물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 여부를 통해 구체화된다. 바이런의 조수로 고용된 델라로비아는 그토록 도피하기를 원했던 돌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나비의 생태를 분석하고 지표화하는 지식 노동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그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으로 루페를 아들 프레스톤(Preston)의 보모로 고용한다(234). 이는 한편으로 가난이라는 공통 분모에 기반한 빈곤층 여성들이 주고받는 도움과 보살핌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백인 여성으로부터 이민자 유색인종 여성으로 흘러내려가는 돌봄 노동의 외주화 방식의 재생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봄 노동에 깃든 국가적, 인종적 차이의 문제를 지엽적으로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도피 습성』은 기후 취약계층이라는 측면에서 델라로비아와 델가도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그려낸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산사태로 집을 잃는 델라로비아의 상황

9) 아이와 대지를 돌보는 자연친화적인 모성의 주체로 여성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선과 반대로, 델라로비아에게 돌봄 노동은 일종의 소외된 노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어미 양의 젖을 빨고 성장하는 새끼 양들과 자신의 젖을 빨고 자라는 아들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던 그는 자기 몸을 황폐해진 광산에 비유한다. “가장 끈질긴 녀석들은 젖을 빠는 어린 숫양들이었다. [아들인] 프레스톤도 마찬가지였다. ... 한 아이는 젖을 빨려고 안달하고 다른 아이는 델라로비아의 표면을 완전히 독차지하는 동안 보낸 세월 때문에 몸이 영구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마치 깊숙이 파헤쳐지고 표면이 완전히 벗겨진 광산과도 같이 효율적으로 착취된 몸이었다”(26).

www.kci.go.kr

은 마치 소설 전반부에 묘사된 델가도 가족의 비극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나비 떼가 서식하던 숲은 홍수와 진흙에 휩쓸리면서 뿌리째 뽑히고, 숲 바로 아래 위치한 그의 집은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며, 집 주변의 나무 꼭대기로 피신한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델가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의 집에 새겨진 구체적인 지리적 특징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고 ... 이주의 재촉(a migratory urge)에 굴복하는 것"(431)뿐이다. 소설 마지막에서 델가도 가족과 델라로비아 가족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실과 강제 이주의 경험은 이들의 삶의 기반을 구성하는 주된 노동 형태가 이동성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종류의 노동임을 독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델가도 가족의 주 수입원이었던 멕시코의 나비 관광업과 농업, 그리고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의 목축업 및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본질적으로 대지와 기후 사이의 생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주형 노동을 기반으로 하며, 따라서 두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노동 형태의 동일성은 인종적, 국가적 차이를 넘어 이들에게 이동의 선택이 불가능한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비자발적 이주의 위험에 노출된 이산자라는 공통의 경험을 선사한다.[10]

농업 노동자로서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계층성이 기후 취약성의 경험과 직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델라로비아는 미국 바깥의 기후 취약계층과 자신이 일종의 공동운명체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델

10) 마지막 장면에서 나무 꼭대기로 피신한 델라로비아가 하늘로 비상하는 나비 떼를 바라본다는 사실에 기반해, 켄드라 스트라우스(Kendra Strauss)는 소설의 결말이 "남편과 그의 가족을 떠나 ... 나비와 함께 날아오르는 델라로비아"(2015:347)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세계의 전지구적 연결성에 대한 델라로비아의 지적, 감정적 성장을 고려할 때 소설의 결말을 그의 성장 서사의 완성으로 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식지를 잃고 미국으로 대피하면서 멸종의 위험에 노출되는 나비 떼와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델가도 가족 간의 유비 관계가 소설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암시된다는 점, 그리고 델라로비아 역시 계층적 측면에서 델가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동의 한계/반강제적 이동의 선택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난 델라로비아의 미래를 주체성의 완성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으로만 읽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www.kci.go.kr

가도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에 더해 바이런을 통해 배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델라로비아는 페더타운의 이상 기후가 개별 사건이 아니라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의 생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인지한다. “내가 몰랐던 완전히 다른 세계”(97)에 대한 이러한 자각은 그가 이전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미국 바깥의 장소와 페더타운의 상호 연관성을 직시하게 만든다.

> 델라로비아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대륙 전체를 누비며 광활한 땅을 오간다는 생각에 압도되었다. 나비 하나하나는 너무도 작고 결국 죽겠지만, 그럼에도 마치 파도와 같은 거대한 힘을 형성하고 있었다. ...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한 뒤 나비들이 호세피나 [델가도]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쫓겨 왔다는 생각은 끔찍했고,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걱정거리였다. 그런 생각은 자기 가족이 소유한 산에 파멸의 기운을 선사할 테니. 만약 나비들이 끔찍한 불행의 피난민이라면, 그들에게서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었다. (143)

나비 떼와 델가도, 델라로비아 가족은 산사태와 홍수라는 “파멸의 기운”에 의해 이산으로 내몰리는 “끔찍한 불행의 피난민”이라는 공통된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은 나비 떼가 대변하는 전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의 “파도와 같은 거대한 힘”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다. 북미대륙을 가로지르는 나비 떼의 이동을 통해 미초아칸주와 테네시 모두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기후 연결망의 일부로 연동하는 상황에서, 나비는 더 이상 먼발치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이나 혹은 델라로비아가 환대하는 불쌍한 난민이 아니라 델가도와 델라로비아의 삶을 똑같이 위협하는 거대한 힘으로 자리매김한다. 나비가 전 세계의 기후 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볼 때, 델라로비아가 델가도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얻는 결론은 앞서 언급한 “다른 장소의 재앙”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나비가 상

www.kci.go.kr

징하는 기후 위기는 티나의 믿음처럼 미국 영토 내의 스펙터클도 아니고 컵의 소망처럼 기적적으로 미국을 피해 가는 것도 아닌, 미국이 외부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열려 있는 상태의 공간임을 증언한다.

델라로비아의 '아래로부터의 세계시민주의'는 델가도 가족으로 대변되는 기후 취약계층과의 유대를 넘어 지구 반대편의 저임금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상기한 대로, 저가 할인점의 중국산 제품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력을 미국 생산업의 주된 위협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아동 착취 공장에서 찍어내는 값싼 물건들은 그의 부모님과 같은 미국의 수작업 숙련공이 가진 장인정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산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델가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계층적 운명공동체에 대한 자각은 미국과 제3세계 간의 갈등 구도 대신 값싼 물건 뒤에 숨겨진 중국인 생산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싸구려 물건을 만드는 건 실제로는 노예 아동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일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찍어낸 물건들은 [미국에 사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삶을 상쇄하며 살아간다. 전 세계의 밑바닥 인생들을 가두는 덫이었다"(159). 페더타운의 빈곤을 노동력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위치한 자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델라로비아의 태도는 이름 모를 중국 노동자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진다. 저가 할인점에서 우연히 제왕나비 모양을 한 냄비 장갑을 발견한 그는 처음으로 '중국산'이라는 물화된 기표에 가려져 있는 실제 사람을 상상한다.

> 그는 손으로 장갑을 매만지면서 실제 인물을 그려보았다. 파란색 종이망을 머리에 쓴 작은 여자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자신과 비슷한 몸집에, 아마도 엄마일 그 여자는 노루발을 위아래로 움직여 섬세한 선과 날카로운 각도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새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줘**. (175)

www.kci.go.kr

앞서 논한 대로 가족과 자연에 대한 돌봄 노동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몸에 남은 마지막 젖 한 방울까지 앗아가는 자기 파괴적인 노동이라고 여기는 델라로비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인 여성 노동자에 대해 델라로비아가 느끼는 연민의 감정이 일종의 자기 동일화 과정에 기반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과 비슷한 몸집”에 “엄마”인 여자는 농장 주부인 델라로비아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재봉틀 앞에 묶인 채 일하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이며, 그렇게 완성된 제왕나비 장갑이 상징하는 비행은 돌봄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델라로비아의 소망을 반영하듯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도피의 열망을 표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델라로비아가 추구하는 계층적 세계시민주의는 단순히 낮은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빈곤함과 같은 일차원적인 의미를 넘어, 젠더화된 노동 형태와 기후 취약성, 그리고 이동성의 제한이라는 다양한 계층적 요소들이 교차하고 접목하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델가도 가족의 일화에서 살펴보았듯, 델라로비아가 이들에게 느끼는 계층적 유대감은 대지와 산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애팔래치아의 농촌 노동자와 미초아칸주의 농촌 노동자로서 기후 위기의 충격을 거의 동일한 방식과 강도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며, 따라서 그가 느끼는 세계시민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안팎의 기후 취약계층이 가지는 취약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또한 중국인 노동자와 델가도 가족의 일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자유로운 이동의 부재는 농업 노동자와 저임금 공장 노동자에게 허락된 이동성이 일반적인 세계시민주의가 지시하는 이동성과는 다른 종류임을 증언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농작물과 양모, 중국제 제품이 전지구적 경제 체제 속으로 포섭되어 세계 곳곳으로 유통되는 것과는 반대로, 그 생산자들에게 허용되는 전지구적인 이동 행위는 빈곤한 현 상태로부터의 탈출구가 부재한 상황이거나 혹은 아예 반강제적으로 뿌리 뽑혀야 하는(uprooted) 이산뿐이다. 이와 같은 이동의 불가능성은 빈곤층 여성들이 공유하는 돌봄

www.kci.go.kr

노동이라는 젠더화된 노동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다. 델라로비아가 루페 델가도와 이름 없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에게 투사하는 연민과 공감의 감정은 엄마이자 주부, 그리고 대지를 양육하는 여성 노동자로서 이들의 노동 형태가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에 대한 저항의 욕망이 혼합된 정서에 가까우며, 이처럼 사적 영역에 귀속된 젠더화된 노동은 농업 노동이 야기하는 이동의 불가능성에 더해 빈곤층 여성의 자유를 이중으로 속박한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도피 습성』은 "다른 장소의 재앙"에 함의된 미국 예외주의적인 이념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계층 의식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기후 의식을 전경화하려 시도하는 작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재앙이 기후 위기의 즉각적인 충격을 미국 바깥의 영역으로 외부화함으로써 미국 내 기후 취약계층의 서사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도피 습성』은 기후 충격의 최전방에 위치한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의 백인 빈곤층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기후재난을 미국의 현실 속으로 재기입하려 시도한다.

"다른 장소의 재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목적으로, 『도피 습성』은 사실주의적 묘사와 소설적 상상력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서사 구조를 사용한다. 한편으로 소설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후 담론과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의 백인 빈곤층의 실제 현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한다. 애킨스와 티나가 대변하는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기후 담론이 애팔래치아 농촌의 백인 빈곤층을 포함해 "레드넥"으로 통칭되는 남부 백인 빈곤층을 기후변화에 무감한 방관자 내지는 계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단순화한다면, 소설은 이들이 어떻게 기후변화와 경제적 이윤 사이에서 때로는 전략적인 선택을 취하

www.kci.go.kr

고 때로는 현재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믿음 체계에 매달리는지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애팔래치아 농촌 지역과 기후 위기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포착하려 시도한다.

소설의 첫 번째 서사 구조가 애팔래치아 농촌 백인 빈곤층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사실주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을 미국 기후 담론의 적법한 참여자로 재규정하는 데에 주력한다면, 두 번째 구조는 계층적 세계시민주의라는 일종의 상상적인 대안을 통해 구성된다. 기후 담론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애팔래치아 지역의 농촌 백인 빈곤층의 현실을 전경화하고 목소리를 회복하려는 델라로비아의 노력은 자신의 계층적 특수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깨달음은 미국 바깥의 빈곤층과 기후 취약계층, 그리고 여성 노동자와의 유대로 그를 인도한다. 델라로비아가 추구하는 계층적 세계시민주의는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글로벌 남반구 농업 노동자와 전 세계의 여성 노동자를 향한 델라로비아의 유대감과 자기 동일화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실의 실제적인 연대로 발현되는 대신 델라로비아 개인의 성장 서사에 있어 일종의 도구적인 역할로 기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라로비아가 보여주는 세계시민주의는 하이제의 “환경 세계시민주의”를 계층의 문제로 한 걸음 더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하이제의 환경 세계시민주의가 “전체 행성에 대한 감각(sense of planet)”을 기반으로 “행성 전체가 마치 개인의 뒷마당처럼 쉽게 이해되는 문화적 순간”을 추구한다면(Heise 2008:4),『도피 습성』은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적 감각에 계층적 감수성을 더함으로써 기후 취약계층과의 연대와 포용을 통한 새로운 기후 공동체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아미타브 고시 지음, 김흥옥 옮김(2021),『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Akec, Athian(2019.10.19.), “When I Look at Extinction Rebellion, All I See Is White Faces. This Has to Chang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oct/19/extinction-rebellion-white-faces-diversity (검색일: 2026.07.18.)

Ballard, Jamie(2026.01.23.), “Americans Are More Likely to Think Climate Change will be Harmful to the World than to Them Personally,” https://yougov.com/en-us/articles/53933-americans-are-more-likely-to-think-climate-change-will-be-harmful-to-the-world-than-to-them-personally (검색일: 2026.07.12.)

Brickhouse, Anna(2022), “Elsewhere Catastrophe,” *American Literary History* 34.1, 33-53.

Clark, Timothy(2010), “Some Climate Change Ironies; Deconstruction, Environmental Politics, and the Closure of Criticism,” *The Oxford literary Review* 32, 131-49.

Faber, Daniel(2024), “Climate Change as Class Struggle In America: Matthew Huber and the Challenges Confronting the Ecological Left,” *Capitalism Nature Socialism* 35.4, 19-39.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2026),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 Politics and Policy, Spring 2026,” https://climatecommunication.gmu.edu/all/climate-change-in-the-american-mind-politics-and-policy-spring-2026 (검색일: 2026.07.17.)

Grener, Adam(2020), “War and Peace in the Anthropocene: The Scale of Realism in Richard Powers’s *The Overstory*,” *Diegesis* 9.2, 45-60.

www.kci.go.kr

Heise, Ursula(2008), *Sense of Place and Sense of Planet: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of the Global*, Oxford: Oxford UP.

Jackson, Hannah(2023.04.22.), “Climate Change Discourse Is Dominated by Middle-Class White Men – It Must Be Intersectional,”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earth-day-2023-climate-change-intersectionality-b2324428.html (검색일: 2026.07.18.)

Kingsolver, Barbara(2012), *Flight Behavior*, New York: Harper Perennial.

Noor, Poppy(2017.03.20.), “Climate Justice Is a Black and White Issue – So Why Isn’t the Environmentalist Movement?” *Lacuna Magazine*. https://lacuna.org.uk/environment/climate-justice-black-white-issue-isnt-environmentalist-movement (검색일: 2026.07.18.)

Rosenthal, Debra J.(2020), “Climate-Change Fiction and Poverty Studies: Kingsolver’s *Flight Behavior*, Diaz’s ‘Monstro,’ and Bacigalupi’s ‘The Tamarisk Hunter,’” *ISLE* 27.2, 268-286.

Strauss, Kendra(2015), “These Overheating World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5.2, 342-50.

Thieme, John(2023), *Anthropocene Realism: Fiction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London: Bloomsbury Academic.

Webb-Sunderhaus, Sara & Kim Donehower(2015), *Rereading Appalachia: Literacy, Place, and Cultural Resistance*, Lexington: UP of Kentucky.

www.kci.go.kr

ABSTRACT

Reading Barbara Kingsolver's *Flight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

Kwon ji-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examines Barbara Kingsolver's *Flight Behavior* through the lens of class, exploring the limitations of dominant American climate discourse and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climate community. Drawing on Anna Brickhouse's concept of "elsewhere catastrophe," the article argues that the American exceptionalist tendency to externalize climate disasters obscures the vulnerability of economically marginalized popula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Against this tendency, *Flight Behavior* places the rural white poor of Appalachia at the center of its climate narrative, exposing the tensions between the environmental ethics of the urban middle class and the material demands of economic survival. Rather than reducing climate denial and seemingly anti-environmental choices to mere ignorance or political conservatism, the novel presents them as complex responses shaped by poverty and precarity. Furthermore, through the protagonist Dellarobia Turnbow's encounters with Mexican climate migrants and with an imagined low-wage Chinese female worker, the novel develops a "cosmopolitanism from below" grounded in class consciousness. Her emerging sense of solidarity extends beyond economic poverty to encompass the shared experiences of climate vulnerability, gendered labor, and constrained mobility. Although this solidarity remains largely confined to the level of personal recognition,

www.kci.go.kr

Flight Behavior extends Ursula K. Heise's eco-cosmopolitanism by incorporating class sensitivity into its planetary perspective, thereby envisioning a climate community founded on solidarity with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vulnerable populations.

Keywords: *Flight Behavior*, climate fiction, elsewhere catastrophe, white poverty in Appalachian rural area, class-based cosmopolitanism

▌논문투고일 : 2026. 09. 07
▌심사완료일 : 2026. 10. 05
▌게재확정일 : 2026. 10. 09

www.kci.go.kr